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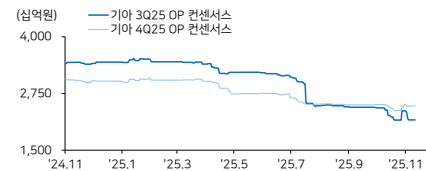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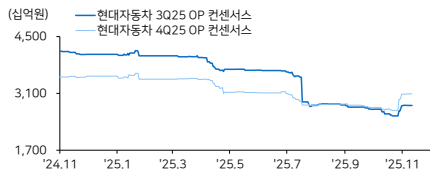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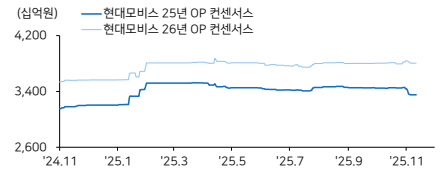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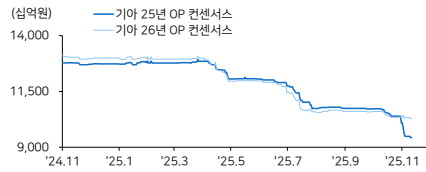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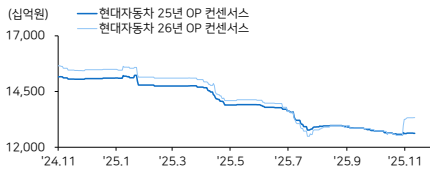
2025.11.25 (화)

자동차/모빌리티 Analyst 김준성 joonsung.kim@meritz.co.kr
RA 김아현 a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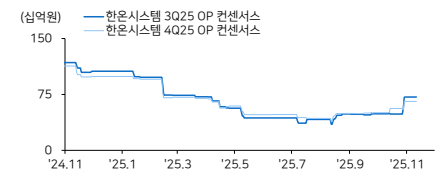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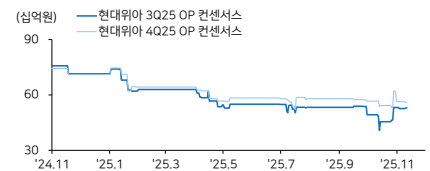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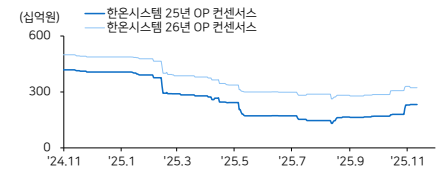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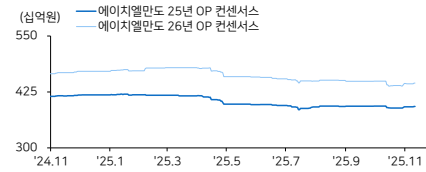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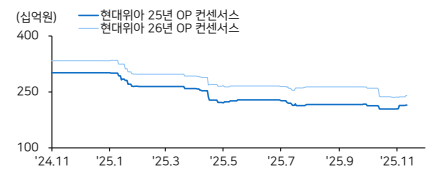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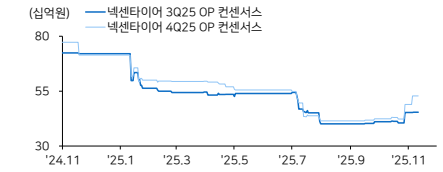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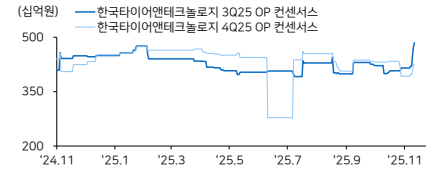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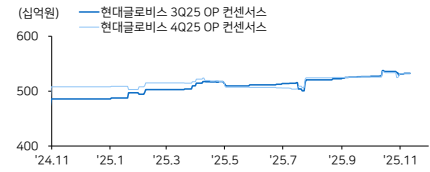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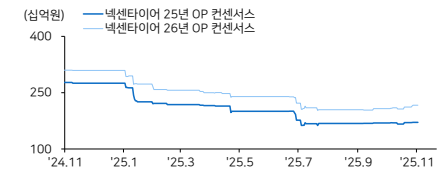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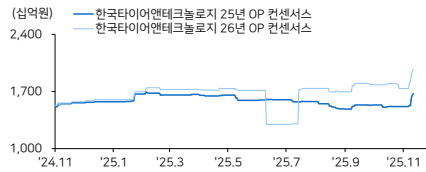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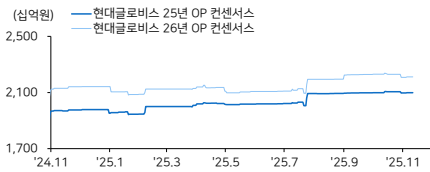
현대자동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현대글로비스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국내외 주요 뉴스

Tesla says Europe could finally get FSD in 2026, and Dutch regulator RDW is key (Teslarati)

Tesla는 유럽에서 FSD 출시 위한 가장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공개. 내년 2월 네덜란드 RDW의 국가 승인을 핵심 관문으로, 다른 EU 국가들의 상호 인정과 EU 전체 승인(TCMV 투표)을 추진 계획. 내년 2월 승인 후 빠른 유럽 전역 론칭을 자신함
<https://han.gl/oJfI2>

BYD leads global BEV market with 15.4% share in Q3, followed by Tesla at 13.4% (CnEVPost)

3Q25 글로벌 BEV 시장에서 BYD가 15.4% 점유율로 1위(58.3만 대), 테슬라가 13.4%로 2위(49.7만 대)를 유지. Tesla는 +29% QoQ 급성장한 반면 BYD는 4% 감소. 중국 시장 포화로 BYD 성장세가 꺾였으나 여전히 BEV+PHEV 합산 세계 1위
<https://han.gl/RnW47>

Huawei-backed Aito plans to launch new SUV model M6 in Q2 2026 (CnEVPost)

Huawei-Seres 합작 브랜드 Aito가 2Q26에 신형 패밀리 SUV 'Aito M6'를 출시. M6는 25만 위안 가격대로, BEV와 EREV 두 가지 트림 제공. 내년에는 M9 F/L와 M9L도 추가돼, Aito는 20만~50만 위안대 SUV 라인업 완성 예정
<https://han.gl/tealZ>

갈등 커지는 중·일-현대차, 저서 '반사이익' 열을까 (뉴시스)

중·일 갈등 심화로 일본 내 BYD에 대한 소비자 반감이 확산되자, 현대차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 제기. 현대차는 올해 '인스타터' 인기에 힘입어 점진적 성장세, 현대차의 전동화 중심 전략이 일본의 친환경 정책 기조와 맞물려 향후 점유율 확대가 기대
<https://han.gl/qmJ6z>

현대차·기아, 현대해상과 로보틱스 보험·금융 상품 개발 (전자신문)

현대차·기아가 현대해상과 손잡고 로보틱스 전용 보험 및 금융 서비스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 양사는 배송·충전 로봇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봇 특화 보험상품(연내 '딥테크종합보험' 1호 출시)과 운영 리스크 관리체계를 공동 개발
<https://han.gl/z9wY6>

BYD leads global BEV market with 15.4% share in Q3, followed by Tesla at 13.4% (CnEVPost)

3Q25 글로벌 BEV 시장에서 BYD가 15.4% 점유율로 1위(58.3만 대), 테슬라가 13.4%로 2위(49.7만 대)를 유지. Tesla는 +29% QoQ 급성장한 반면 BYD는 4% 감소. 중국 시장 포화로 BYD 성장세가 꺾였으나 여전히 BEV+PHEV 합산 1위
<https://han.gl/RnW47>

Huawei-backed Aito plans to launch new SUV model M6 in Q2 2026 (CnEVPost)

Huawei-Seres 합작 브랜드 Aito가 2Q26에 신형 패밀리 SUV 'Aito M6'를 출시. M6는 25만 위안 가격대로, BEV와 EREV 두 가지 트림 제공. 내년에는 M9 F/L와 M9L도 추가돼, Aito는 20만~50만 위안대 SUV 라인업 완성 예정
<https://han.gl/tealZ>

갈등 커지는 중·일-현대차, 저서 '반사이익' 열을까 (뉴시스)

중·일 갈등 심화로 일본 내 BYD에 대한 소비자 반감이 확산되자, 현대차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 제기. 현대차는 올해 '인스타터' 인기에 힘입어 점진적 성장세, 현대차의 전동화 중심 전략이 일본의 친환경 정책 기조와 맞물려 향후 점유율 확대가 기대
<https://han.gl/qmJ6z>

현대차·기아, 현대해상과 로보틱스 보험·금융 상품 개발 (전자신문)

현대차·기아가 현대해상과 손잡고 로보틱스 전용 보험 및 금융 서비스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 양사는 배송·충전 로봇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봇 특화 보험상품(연내 '딥테크종합보험' 1호 출시)과 운영 리스크 관리체계를 공동 개발
<https://han.gl/z9wY6>

테슬라·폴스타·BYD, 수입차 성장 견인-1만대 클럽 '5-7%' (전자신문)

올해(1~10월) 한국 수입 승용차 시장은 전기차 판매가 +76.2% YoY 급증(73,288대)하며 사상 최대 실적 달성. Tesla가 92.8% 성장한 47,962대로 3위에 오르며 BMW·벤츠를 바짝 추격, 수입 전기차 비중은 국내의 36%를 넘어 역대 최고 기록
<https://han.gl/REGJ7>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